

# 전북경찰, 여성안전대책 성과 거둬

전북경찰이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특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강남역 물자 살인'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 여성불안 신고 781건(하루 평균 21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북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피의자 37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데이트 폭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네조폭 6건, 강간·

## 6월 중 불안 신고 781건 접수... 37명 검거

강제추행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렌트카에 부착할 차량 번호판을 훔친 피의자를 신속한 수사로 검거·구속해 2차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도 정신불안증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숙웃차림으로 부엌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신속히 출동해 제압하는 등 정신질환자 31명에 대해 입원조치를 했다. 전북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으로 지역경찰 3만여명과 협력단체 8600여명 등 4만여명이 여성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전주 덕진경찰서는 황방산 일부 등산구간에 휴대전화 불통지역이 있다는 불안신고를 접수,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기지국 인테나망을 조정해 불통지역을 해소했다.

부안경찰서는 삼마을 여성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시도 보건소 여성 1인 거주 관사에 CCTV를 설치하

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여성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변위해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스마트위치 지급을 확대하고, 도서지역 여교사 등의 1인 숙소에 대한 방법집단에 나서 범죄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도내 5대 범죄는 지난해 동월 대비 1608건에서 18.3%가 감소한 131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진수 기자

## 동업 제안 거절한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50대 징역 5년형

동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 감금)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주 완산구 다가동 자택에 여자친구 B(44)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까지 40시간 동안 B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탄소복합재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13일 ㈜휴먼컴포지트 등 15개 기업과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육성지원사업의 시제품제작지원 분야에 선정된 기업들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최저임금 협상 진전...시급 6253원~6838원 도출

###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서 심의구간 결정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시급 6253원과 최고시급 6838원의 심의구간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이 종료된지 14일 만이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은 노사가 공익위원 측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미룬됐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할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시급 6253원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최소 인상률(3.7%)을 적용한 것이다. 최소 인상률 3.7%는 지난달 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 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이다.

최고시급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최고 인상률(13.4%)을 적용한 액수다. 최고 인상폭 13.4%는 최저시급 최소 인상률(3.7%)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분배 개선분(2.4%), 협상 조정분(7.3%)을 모두 더한 값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시급 6253원~6838원)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난달 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최저임금 시급구간이 도출돼 막판 협상에서 노사 양측간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13차 전원회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박용주 기자

## 남편이 아내 흉기로 찌르고 자해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A(41)씨가 부인 B(35)씨의 팔과 등을 흉기로 찌렀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부인이 이웃집으로 대피한 사이 A씨는 자신의 배와 팔 등을 흉기로 찌러 자해했다. 남편의 범행 직후 중상을 입은 부부는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진수 기자

## 전주 완산구, 공동주택 주민편익증진사업 순항

### 보수 등 85억3000만원 투입

전주시 완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증진사업이 해당 단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완산구는 공동주택 68개단지에서 체육시설, 컴퓨터,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주민편익증진사업과 노후공동주택 10개단지(20년 이상 경과)에 옥상방수, 도색 등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노후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난방시설 개선 등 입주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주거시설 안전과 유지관리가 증진되고, 특히 소형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주민들이 자부담으로 공공시설을 보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산구는 연말까지 노후공동주택 보수에 175개단지, 주민편익시설 증진사업에 347개 단지에 총 85억3000만원의 시·도비 예산을 투입, 주민공동이용 시설 보수·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시민학습공간 '인문학 365 학습마당' 으로

전주시가 시립도서관 등 시민들의 학습공간을 '전주인문학 365 학습마당'으로 지정·운영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완산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시평생인문학 네트워크 참여 42개 기관 및 단체를 '전주인문학 365 학습마당'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인문학 365 학습마당'은 평생인문학 네트워크를 학습공동체로 연결해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붙여진 학습공간의 명칭이다.

시는 평생학습관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을 각각 '전주인문학 365 학습마당' 1~3호점으로 지정하는 등 도서관 분관과 완판본문화관, 전통문화

연수원 순으로 총 42호점까지 지정했다.

또한 시는 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관련 세미나, 전시, 포럼 등을 주관하는 단체와 기관, 카페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시민의 학습공동체 공간인 전주인문학365 학습마당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GNLC)에 공식 가입하고, 업무포장 등록이 완료된 '전주인문학 365' 로고를 전 네트워크 부서에서 함께 활용하는 등 전주를 인문학 도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격월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 통합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현대판 신(新) 과거시험' 참가 유생 모집

### 16일 한옥마을에서 진행

전주한옥마을에서 현대판 '신(新) 과거시험'이 치러진다.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는 '청춘맞장구'가 '현대판 신(新) 과거시험' 프로그램 마련하고, 과거시험에 참여한 유생 40명과 서포터즈 10명을 모집한다. 오는 16일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온두레공동체에 참여한 청년들이 모여 옛 과거시험을 현대화해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문화 컨텐츠다.

과거시험은 참가자들이 유생 옷을 입고 5명씩 8팀으로 나눠 치르게 되며, 문과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전통 문화와 상식, 년센스 등 문제를 푸는 시험으로 진행된다. 무과의 경우 한옥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해 장원 급제함을 받게 된다.

장원 급제팀 시상은 승강대에서 진행되며, 장원급제자들은 '큰꽃과 나무(온두레공동체)'에서 협찬한 화관을 쓰고 참가한 유생들과 전북대학교 풍물패 '덩더쿵'과 한옥마을에서 장원급제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서삼경을 외우거나 무예를 연마하지 않아도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과거시험 참가 신청은 인터넷(<http://goo.gl/forms/Ea9faZr6J8VJN5ZB3>)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오전 경기전 앞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5000원이다.

박선이 단장은 "신 과거시험이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한옥마을에 새로운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해 먹거리에 편향된 관광형태를 개선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